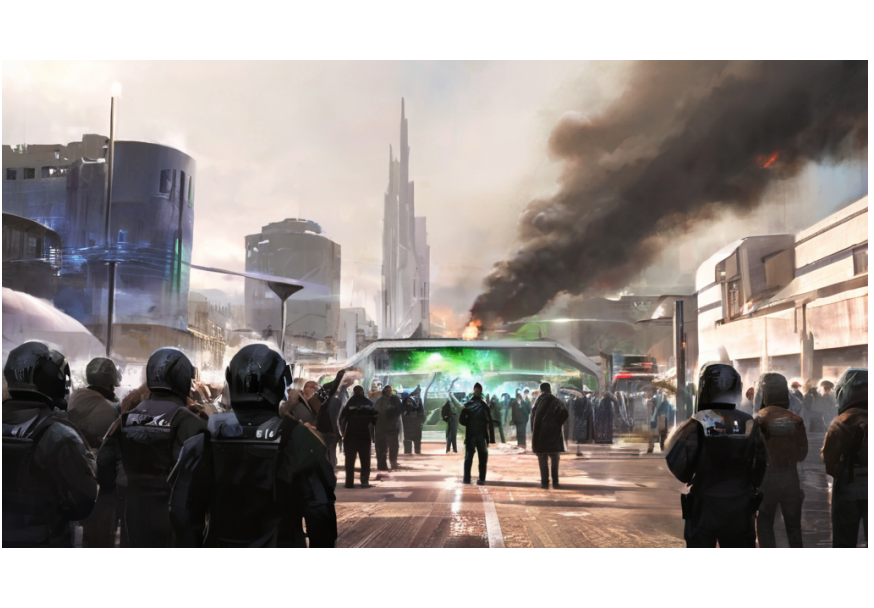
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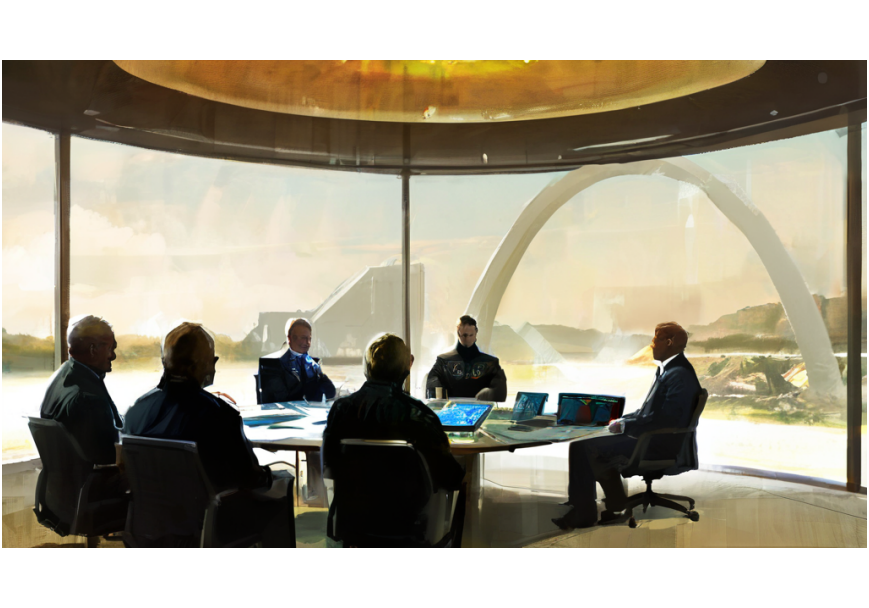
◆



대통령은 창문을 통해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메시아 한재호]라던가, [클론 의무화 찬성!] 피켓을 든 사람들이 한재호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대통령 공관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대통령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돌려 한재호 원장의 발표에 다시 집중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강백호 원장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는 완벽한 클론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통령 각하와 양당 대표님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과 재계 총수님들께서는 이제 안심하시고 클론 의무화를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10여 명의 관련자들은 박수를 치는 둥 마는 둥 성의 없이 반응했다. 재호는 괜히 머쓱해져서 동녘의 몸을 가진 백호 옆에 앉았다.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에, 우선 좋은 기술을 확보해주신 한재호 원장과 강백호 원장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여당 대표부터 한 말씀 하시죠."

강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당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재호 원장이나 저 또라이, 아니 죄송합니다. 강백호 원장이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클론 의무화 입법화에 찬성하겠습니다."

공관 안이 술렁거렸다.

"아니, 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민생 법안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시깁니까? 야당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에 입당하십시오. 저흰 무조건 1순위 지역에 공천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대표인 장 의원의 말에 강 의원이 발끈했다.

"장 대표! 지금 뭐하자는 거야? 또 한 번 붙어보잔 거야? 이게 정부 과제인데 야당이 왜 숟가락을 얹으려 그래?"
"아니 먼저 정치질을 한 게 누군데 이래? 여기서 한 번 또 붙어봐?"
"이 새끼가 보자보자 하니까!"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에, 재계 총수들이 그들을 진정시키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자, 의원님들. 고정하시구요. 제가 경제연합회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클론의무화는 입법이 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계 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영으로 애매하게 묶여있는 오리엔티스를 민영화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회사가 재원을 부담하겠습니다."

경제연합회 대표, 이 회장의 말에 옆에 있던 김 회장이 발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 회장을 삿대질하며 나섰다.

"아니, 이 회장님! 경제연합회 대표가 지금 할 소립니까? 민영화를 해도 공정하게 공개 입찰을 해야죠? 대통령님, 저희 회사가 부담할 테니 저희에게 주십시오."

잠자코 듣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저음의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각하. 이건 군사 작전과 연관이 큽니다. 이미 클론 부대가 창설이 되어있구요. 오리엔티스의 기술이 저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오리엔티스를 저희 군이 흡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답해진 강 의원이 소리쳤다.

"아니, 다들 왜 난리를 부려요! 원래부터 이 기술에 관심 있고 쭉 이용한 건 접니다! 그렇죠, 한 원장님?"
"자네만 이용했어? 나도 클론을 몇 번 했는데?"

장 의원이 소리치자 이 회장이 다시 끼어들었다.

"의원님들! 자꾸 정치에만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 의원의 분노가 이번에는 이 회장을 향했다.

"당신 돈 좀 있다고 떠들어? 세무조사 또 한 번 나가봐?"
"저도 의원님 자료 없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조용히들 하세요!"

공관 안의 난리법석이 순식간에 사그라 들었다. 강 의원이 자리에 앉으며 입으로 뭐라 투덜거리긴 했지만 말이다. 대통령이 다시 자리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원장, 그리고 강 원장.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나라가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정부혁신과제로 선정하여 기술의 세계 특허를 신청하고, 나라가 운영하는 국정 과제로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장 의원이 발끈했다.

"이거 임기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본인 업적으로 낼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로서 반대합니다!"

강 의원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 새끼가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를 높여!?"

순식간에 회의장이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재호 원장은 점점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한재호 원장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챈 태웅이 재호를 부축하며 공관 안의 사람들에게 공지했다.

"원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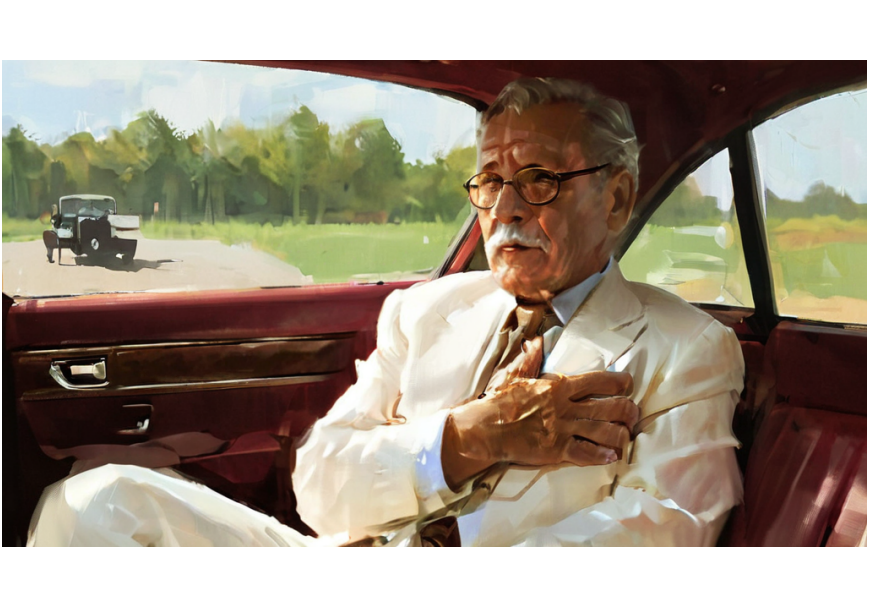
태웅과 재호, 그리고 백호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정재계의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비서실의 사람들이 능숙하게 열어준 문을 통해 공관을 빠져나왔다.

◆

차를 타고 오리엔티스의 기지로 돌아가는 길, 태웅이 멋쩍게 웃으며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만 클론하고 싶어하더니, 정치적 힘이 생기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서로 하겠다고 난리군요. 정말 사람들의 이기심을 어쩔 수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렇게 말하며 재호에게 고개를 돌리는데, 재호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심장을 움켜쥔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재호를 보고, 백호가 말을 걸었다.



"재호, 괜찮나?"

재호는 대답이 없었다. 백호는 재호의 몸 상태를 체크해 보는데, 재호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진 얼마 걸리지 않았다.

"라이딩 건을 줘!"

백호가 태웅에게 소리쳤다. 태웅이 놀라 품 속에 지니고 있던 라이딩 건을 건네자, 백호가 빼앗듯이 낚아채어 재호를 향해 라이딩 건을 쏘아 재호의 의식을 자기 몸, 정확하게는 동녘의 몸에 주입했다. 재호의 의식이 동녘의 몸에 들어오면서 동녘의 몸에 몇 가지 기억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

어두운 공간 속에 6개의 캣츠아이가 떠 있다.

'바흘라 모르프 세피로트'

한 캣츠아이에서 주문 같은 음성이 흘러나오자, 어두운 공간의 중심에 빛나는 세피로트의 나무 형상이 나타났다.

'자이 백호 티페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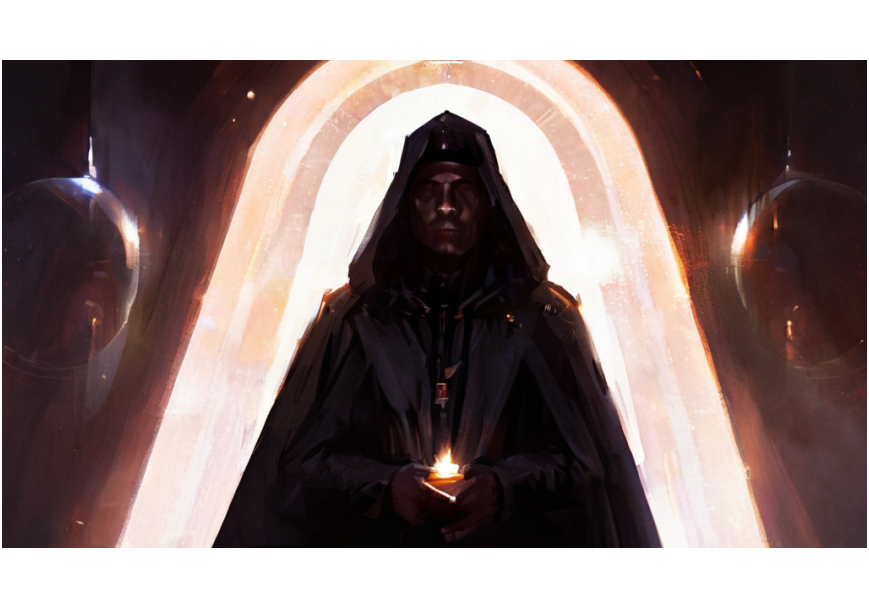
두 번째 캣츠아이에서 마찬가지로 주문 같은 음성이 나오자 육각형의 도형이 나타났다.

'세피라 네차흐'

세 번째 캣츠아이에서 음성이 나오자 도형 안에 눈 형상의 도형이 나타났다.

'나이 투세 소토 카발라'

네 번째 캣츠아이에서 음성이 나오자 모든 캣츠아이들이 사라지고, 검은 사제 망토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

백호가 다시 차량 안에서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백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재호였다.

"괜찮나, 백호?"

백호는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부스스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자네가 의식이 없어 내가 라이딩 건을 쐈는데...?"
"나는 잠깐 현기증이 났던 거라, 바로 해제를 했네."
"그럼 내가 지금 본 건..."
"뭘 더 봤나? 자네 기억이 아직 완벽하게 복구된 건 아니라서."

백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아마 내 기억일 수도 있겠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호가 고개를 돌리니, 한 소년이 다급하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동녘의 이웃인 덕현이었다.

"동녘이 형! 동녘이 형!"

백호가 반가운 마음에 덕현에게 손을 흔들었다. 덕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형! 할머니가 편찮으세요! 할머니가 너무 편찮으세요!"

백호가 깜짝 놀라 태웅에게 소리쳤다.

"태웅! 지금 빨리 화장터 쪽으로 가줄 수 있어? 아는 할머니가 아프신데, 원래 클론 대상자야! 얼른 가서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아."

"지금 차가 엄청 막혀서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 게다가 원장님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재호가 창백한 안색으로 말했다.

"화장터면 여기서 멀지 않으니 백호, 자네가 먼저 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원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겠네. 내 상태도 지금 말이 아니라서... 미안하네."
"알겠어. 태웅, 재호를 잘 보살펴주고!"

동녘의 몸을 한 백호는 차 문을 열고 나와 덕현을 업고 할머니가 계신 덕현의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허름한 산동네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클론의무화 찬성 한재호를 대통령으로!]란 내용의 플래카드들이 여럿 걸려 있었다.

◆

백호는 고개를 돌릴 힘도 없는 할머니를 내려다 보며 덕현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 왜 말 하지 않은 거야?"
"며칠 되셨어요. 오리엔티스에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형 계속 바쁘다고 하셔서."

백호는 태섭에게 무전 연락을 했다.

"태섭! 어떻게 됐지? 지금 마을에 지원 와주기로 했는데...."

무전 너머로 태섭이 대답했다.

'네, 지금 원장님이 의식을 잃으셔서, 태웅 대장이 라이딩해서 집도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지원 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어쩌죠?'
"알겠어. 일단 끊어."

백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정확히는 동녘의 표정이지만.

"장비도 없는데, 어쩌지."

심각함을 눈치 챈 덕현이 물었다.

"왜요? 못 오신대요?"

백호가 대답을 하기 전에,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낀 동녘이 일단 품 속에 있던 라이딩 건을 꺼냈다. 아까 차량 안에서 태웅에게서 받은 라이딩 건이었다.

"안되겠다. 일단 라이딩부터 할게."

백호는 라이딩 건을 이용해 할머니의 의식을 자신에게 주입했다. 할머니의 의식이 잘 느껴지지 않자, 백호는 눈을 감고 스스로의 의식 속에 말을 걸었다.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저 동녘이에요. 지금 제 몸에 들어오셨어요!'

의식 속에서 대답을 듣기 위해 백호는, 아니 동녘은 눈을 더욱 세게 질끈 감았다. 저 너머에서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 덕현이는?'

동녘은 자기 몸에 들어온 할머니의 의식이 볼 수 있도록 덕현을 마주 본 채 할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쳤다.

"할머니, 지금 보세요! 덕현이가 보이시죠?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시면 돼요!"

덕현이 오열했다.

"할머니, 저 보이세요? 지금 동녘이 형이 소울라이딩을 해주셨어요. 할머니, 좀만 버티시면 클론해주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동녘이 떨리는 손으로 덕현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정확히는 동녘의 몸에 들어온 할머니가.

"덕현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뭐가 미안해요! 안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동녘이한테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지냈으면 좋겠어."

동녘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 눈물은 누구의 눈물일까, 할머니의 눈물일까, 아니면 동녘의 눈물일까?

'할머니,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제가 클론해드릴 수 있어요.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동녘이 마음 속으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가 동녘의 입을 빌어 말했다.

"동녘아, 고맙다. 우리 덕현이 두 발로 튼튼하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나 대신 클론해주면 좋겠어."
"할머니, 저는 괜찮다니까요! 지금 약해지시면 안 돼요!"

덕현이 소리쳤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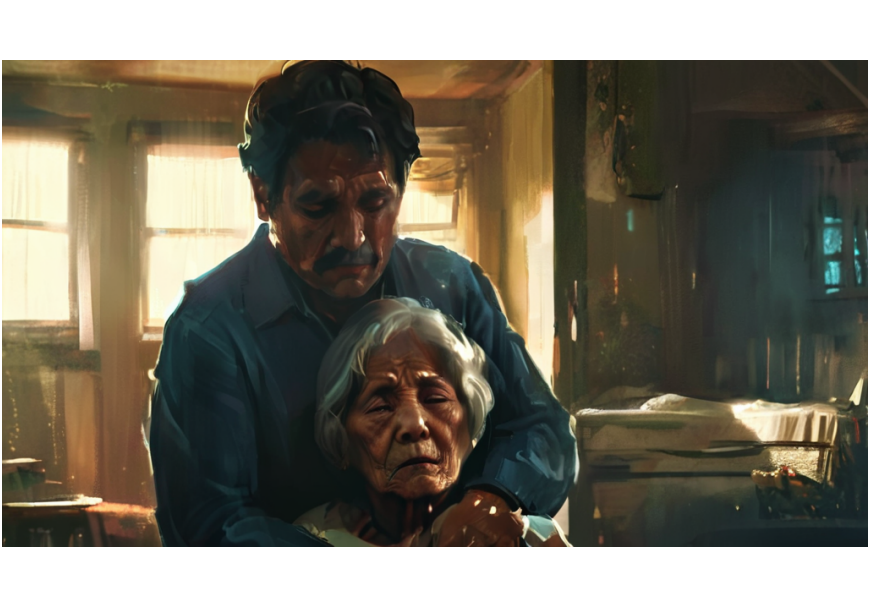
"함께 있어줘서 행복했어.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말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구나 동녘아."

할머니가 동녘의 몸을 빌어 덕현이를 껴안으며 말했다.

"미안했고, 고마웠고, 사랑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쁜 숨을 내쉬더니, 곧 호흡이 멈췄다. 동녘의 손바닥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조금만 참으시라니까! 제가 기술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Continued to ep.18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